

Ⅲ. 최신 환경 단신

1. 환경 정책 동향

◆ 지방자치단체별 환경관리 기능 강화

-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주요 하천의 상·하류지역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끼리 지역환경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환경관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
- 환경부는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중장기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,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시행실적에 따라 국고보조를 차등 지급하는 등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임

◆ 환경윤리 서울 선언문 채택

- 지구환경의 문제를 인류가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'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(Seoul Declaration on Environmental Ethics)'이 6월초 서울에서 열리는 '세계환경의 날' 행사에서 채택될 예정임

◆ 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도입 주장

-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발표한 "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방안"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오염물질 총량 규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, 인센티브제를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
- 배출권거래제란 개별기업체마다 오염물질의 배출허용한도를 할당한 후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면 남은 몫은 권리로 인정해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
- 정부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울산, 온산공단의 아황산가스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총량규제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해당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음

◆ 전경련 환경관련 OECD 의견

-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등 다자간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조치를 도입하거나 운영하는 문제에 대한 한국 경제계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환경에 대한 기업의 지출을 충분히 고려해 줄 수 있는 세제와 회계원칙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
- 전경련은 환경세제, 오염물질배출권 제도 등 조치들을 도입하는 것을 지지하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각종 환경세와 환경부담금, 폐기물예치금 등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

◆ 환경부, 광양화력발전소 건설 불가 입장

- 환경부는 포항제철이 LG그룹과 현대그룹에서 추진중인 무공해 LNG방식의 화력발전소와는 달리 대형 오염원인 유연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특히 환경오염이 심각한 광양만지역에 설치하려는 의도에 의문을 제시하며 광양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짐

◆ 우리 나라의 산성비 피해규모 : '93년 기준 연 1조 5천억~3조 5천억

- 환경부에 따르면 남한지역의 산성비 피해 규모는 연 1조 5천억원~3조 5천억원('93년 기준)에 이르며, 2000년에는 2조 5천억~6조원, 2005년에는 3조~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2. 환경 기술 동향

◆ 공해 없는 플라스틱 배터리 개발

- 미국 볼티모어 존스홉킨스대학의 테오도르 핀러와 피터 서슨 박사는 최근 1백% 플라스틱 재질로 수백 번의 충전이 가능한 플라스틱 배터리를 개발하였음
- 기존의 배터리는 탄소나 아연 또는 중금속인 니켈이나 카드뮴을 사용해

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았지만, 새로운 배터리는 긴 사슬모양의 분자로 이루어진 합성물질을 이용해 제조돼 가벼울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음

◆ **현대엘리베이터, 환경설비산업 본격 착수**

- 현대엘리베이터(대표 백영문)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과 발포스티로폴 재생시스템 사업 등 환경설비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로 하였음
-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은 음식물 발효설비(제품명 바이오테크)와 탄화설비(제품명 카르보메이트), 그리고 탈취기, 반송장치, 수분조절장치 등인데 일본의 업체와 기술제휴를 통해 국내에서 조립생산하며 발포스티로폴 자원화시스템은 스웨덴의 것을 들여와 판매하기로 함
-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에 환경설비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첨단 전문기술을 갖춘 기술중심의 회사로 새롭게 도약하고,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녹색기업의 이미지를 굳혀나간다는 계획임

◆ **벤젠, 클로로포름도 대기오염물질 지정**

- 벤젠, 클로로포름, 방향족 탄화수소 등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유해화학물질이 새로 대기환경 규제물질로 지정됨
- 환경부는 16개에 불과한 특정유해 대기오염물질에 올해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발암성 물질과 독성물질 등 22개 물질을 새로 포함시켜 본격 관리에 나서기로 함
- 새로 추가되는 규제물질은 벤젠, 포름알데히드, 사염화탄소, 셀렌화합물, 클로로포름, 벤지딘, 프로필렌옥사이드 등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4개 물질과 방향족탄화수소, 톨루엔, 크실렌, 스티렌 등 독성물질 8개종임

◆ **LPG차, 휘발유차보다 오염도 10배 높아**

- 액화석유가스, 즉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보다 대기오염 총량이 10배 이상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음

- 환경부가 조사한 '차종별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'에 따르면, 우리나라 LPG차 1대당 연간 대기오염부하량은 6백91kg으로 휘발유차의 대당 66kg에 비해 10.5배나 많았음
- LPG차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1km 주행기준 일산화탄소 0.91g, 탄화수소 0.1g, 질소산화물 0.16g 인 반면 휘발유차는 일산화탄소 0.77g, 탄화수소 0.13g, 질소산화물 0.14g 이었음

3. 국제 환경 동향

◆ G7 + 러시아 '8국 서밋', 환경-어린이 의제 첫 국제회의

- 서방선진 7개국(G7)의 환경장관회담인 '환경서밋'에 러시아가 참여한 '8국 서밋'이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지난 5월 5일부터 이틀간 개최됨
- 산업화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, 그리고 각종 자연환경 파괴는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현재와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
- '환경파괴와 오염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'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 주는 최초의 계기 마련하였으며,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푸른 환경을 가꾸기 위해 국제 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

◆ 독일 에어즈게버그-대기오염과 산림훼손

- 독일 색소니주 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이 최고조에 달하는 겨울철에 한해,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체코의 발전소를 폐쇄시키는 조건으로 독일의 환경친화적 발전소에서 체코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계획
- 대기 오염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가간 공동 노력 필수

◆ 미국, 지구온난화 가스 방출 2010년 20% 증가

- 미국은 지구온난화 가스 방출을 줄이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오는 2010년에는 이 가스 방출량이 지난 90년보다 약 20%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국무부 보고서가 밝혔음

◆ 중국 절강성, 환경오염 공장 1천 621개 폐쇄 조치

- 중국 동부 절강성내의 지방정부들은 환경오염도가 심각한 공장 1,621개를 폐쇄하고 1,517개 공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함

◆ 제록스 캐나다사 대규모 비용절감

- 제록스 캐나다사는 제품생산과정에 있어 환경보호를 감안한 Factory-Processed Manufacturing이라는 생산공정으로 제품개발시부터 제품에 필요한 부품들을 제품수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재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 도입으로 수백만 달러의 원자재비와 생산비를 절감하였음

◆ 일본 환경인증기구, 'ISO 14001' 대응책 제시

- 국제표준화기구(ISO)가 작성한 환경경영체제규격 ISO 14001의 발효로 일본의 유통업체도 환경대책이 급선무가 되고 있음

◆ EU, 기업의 환경책임제도 추진

- 기업이 유발한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하는 EU차원의 환경책임제도 마련을 둘러싸고 역내기업 및 환경단체간은 물론 회원국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음
- EU 집행위는 의회의 관련법률 제정요청에 따라 그간 엄격한 오염자부담 원칙에 의거, 기업에 대해 자신이 유발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률제정을 추진해왔음
- 그러나 EU 차원의 환경피해 책임제도 마련에 역내업체와 독일, 프랑스, 영국의 거센 반발을 보임에 따라 집행위의 이러한 작업은 사실상 정체상태를 보여왔음